주52시간 적용 APC 감귤유통 '비상'

내년 고산농협 빼고 도내 전체 시행… 1~2월 고비
근로기준법상 적용 제외·외국인 근로자 고용 제안

내년부터 50인 이상의 사업장에 대한 주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되는 가운데 본격적인 노지감귤 수확철을 맞아 제주지역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의 인력 운용에 비상이 걸렸다. 당장 직면한 문제로 관련법인 근로기준법 상의 적용 제외 또는 외국인 노동자 고용 등이 대안으로 나오고 있지만 결과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13일 제주도와 제주농협 등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개정 및 도입에 따라 1단계(300인 이상)로 주52시간 근무제를 이미 시행 중인 곳은 제주시농협, 감귤협동조합, 제주축협 등 3곳이다. 이를 제외한 2단계(50인 이상 150인 미만) 적용 대상은 도내 농협 19곳(83%)이다. 3단계(50인 미만) 적용은 2021년부터 이뤄지며 제주는 고산농협 사업장이 유일하다.

사실상 내년부터 도내 APC에서의 주52시간 근무제가 본격 시행되는 셈이다. 1~2월이 고비다. 현장에서는 탄력근로에 따른 추가 인력 수용과 함께 고정자산 투자로 경영비가 가중되고 기존 전문인력의 근무 기피로 운용에 차질을 빚게 된다. 농가수취가 하락으로 농가부담으로 전이될 뿐만 아니라 생산·유통에 있어 출하물량의 지연처리로 인한 민원과 미숙련 인력충원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는 계통출하 비율과 상품화 비율 모두의 감소세로 이어진다.

이러한 이유로 지난 9월 제주농협과 (사)제주감귤연합회는 주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다른 건의문을 채택,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대상 인정과 APC에서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용 대상에 포함시켜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제주농협 관계자는 "영농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은 주52시간 적용제외를 받고 있지만 회원농협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금융사업장으로 간주해 관련법을 적용하고 있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거론됐고, 앞으로 국회의원과 농식품부에 관련 제반자료를 활용해 제주가 처한 실태를 전달, 적용제외 대상에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제주도와 함께 대정부 설득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고용노동부는 예외적용 요구가 전국적인 현상이 아닌 일부지역에 국한된다고 판단하고 APC의 근무현황 및 실태에 대한 정확한 통계치 제시하고, 3개월 단위 탄력근로제 실시 및 추가 인력 고용 통한 교육후 작업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와함께 다른 지역의 경우 쌀생산 RPC와 사과·배 등의 APC에서는 감귤APC 만큼 위기 상황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황으로 제주로선 불리한 입장이다. 이러한 불리한 조건에서 제주지역농협 APC가 처한 현실을 정확하게 전달해 정부를 어떻게 설득할 수 있는 지가 최대 관건이다.

백금탁기자

에어부산, 제주-울산 노선 증편

에어부산은 오는 27일부터 제주-울산 노선에서 매일 3차례씩 항공기를 운항한다고 13일 밝혔다. 그동안 에어부산은 이 노선에서 하루 2차례 운항했다.

증편하는 항공편은 울산공항에서 오후 1시 20분 출발해 오후 2시 20분 제주공항에 도착하는 일정이다. 제주공항에서는 오후 2시 55분 출발해 오후 3시 55분 울산공항에 도착한다.

에어부산은 이번 증편 운항을 기념해 항공권 특가 이벤트를 실시한다.

특가 이벤트는 오는 14일 오전 11시부터 20일까지 진행되며, 이벤트 참여 노선은 제주-울산 노선을 포함한 국내선 전 노선이다. 이상민기자

로또복권 <제880회>

당첨번호	7, 17, 19, 23, 24, 45
2 등 보너스숫자	38
1 등	6개 숫자 일치
2 등	5개 숫자+ 보너스숫자일치
3 등	5개 숫자 일치
4 등	4개 숫자 일치
5 등	3개 숫자 일치

제주어류양식수협이 12~13일 제주시민복지타운에서 '2019 제주광어 대축제'를 개최, 제주광어의 우수성과 안전성을 널리 알렸다. 사진=제주어류양식수협 제공

'제4회 제주광어 대축제' 성황리 개최

대한민국의 세계일류상품인 제주광어를 홍보하는 축제의 장인 '2019 제주광어 대축제'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제주어류양식수협(조합장 한용선)이 12~13일 제주시민복지타운에서 '2019 제주광어 대축제'를 개최, 제주광어의 우수성과 안전성을 널리 알렸다.

2016년 시작한 제주광어 대축제는 제주광어 요리 경연, 유튜브 경연, 제주광어 노래자랑, 어린이 사생대회, 청소년 댄스 경연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됐다. 고품질 제주광어를 이용한 광어회와 초밥은 물론 어묵, 스테이크, 광어카레, 광어미역국 등 다양한 먹거리도 저렴한 가격에 선보이며 호응을 이끌었다.

부대행사로 '제주광어 유혹의 조건'의 주제로 광어학 심포지엄(위원장 이영돈)도 열렸다.

한편, 주최 측인 제주어류양식수협은 매년 축제를 통한 수익금 전액을 지역사회에 기부하며 나눔문화 조성에도 앞장서고 있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창립기념일을 축하합니다

금주(10월 14일~20일)의 창립기념일 <창립일순>

회 사 명	대 표	창 립 일
우정새마을금고	고인구	1973년 10월 15일
제주은행 중문지점	김택진	1976년 10월 15일
(주)한국방역공사	고영철	2007년 10월 15일
제주새마을금고 이도지점	천준호	2011년 10월 18일
농업회사법인 제주비료(주)	이용민	1992년 10월 19일
제주사람들	김성환	1998년 10월 20일

10월 21일부터 27일까지 창립일을 맞는 회사는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750-2271)

"동부 서민밀착형 금융기관 자리매김"

▶우정새마을금고=15일 창립 46주년을 맞이한 우정새마을금고(이사장 고인구·사진)는 조천본점을 중심으로 제주 동부지역의 서민밀착형 금융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튼튼한 재무구조를 바탕으로 2019년도 제주도 새마을금고 경영평가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타 금융기관과의 차별화된 기능으로 풀뿌리 금융을 지향하고 있다.

고인구 이사장은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임·직원 교육 등을 통한 고객 서비스 확대로 고객감동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환원 사업에도 지속적으로 신경 쓸 것"이라고 밝혔다. ☎ 조천본점 783-6425, ☎ 김녕지점 783-5406.

"지역사회 금융 동반자 역할 최선"

▶제주은행 중문지점=15일 개점 43주년을 맞는 제주은행 중문지점(지점장 김택진·사진)은 중문관광단지를 중심으로 중문지역 내 기업체 및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질 높은 금융서비스 제공하고 있다.

지역 내 각 학교와의 1사1교 협약을 통한 금융교육은 물론 사회단체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지역 내 봉사활동도 충실히 하고 있다.

김택진 지점장은 "중문지점은 관내에 관광단지와 농촌이 공존하는 지역으로 다양한 금융욕구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고객들 각각의 욕구에 맞는 최적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 738-0315.

"바이러스 감염병 예방 위해 최선"

▶(주)한국방역공사=15일 창립 12주년을 맞는 (주)한국방역공사(대표 고영철·사진)는 최근 국제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바이러스 매개체에 대한 방역을 사전 차단하는 데 주력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쾌적한 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또 새로운 해충이나 바이러스에 대한 연구 및 자료를 분석해 향후 도내 방역 산업에 기여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고영철 대표는 "방역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인간의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있는 만큼 천연약품을 사용해 사람에게 위해한 방역은 최소화하고 방역 대상물에 대해서는 초기에 컨설팅부터 문제점이 없어질 때까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고객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756-5995.

"고객 위한 최상 금융서비스 제공"

▶제주새마을금고 이도지점=18일 개점 8주년을 맞는 제주새마을금고 이도지점(지점장 천준호·사진)은 자산 420억원 달성 등의 성과로 내실을 다지고 있다. 이도 한일베라체아파트 상가에 위치해 주변 상가 및 일도지구, 삼화지구, 아라동을 거점으로 최상의 금융 서비스를 충실히 제공하고 있다. 또 지역사회 참여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한편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는 각오다.

천준호 지점장은 "지역주민에 대한 감사함을 잊지 않고 고객을 섬기는 금융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757-8550.

"특화된 작물별 전용 비료 등 공급"

▶농업회사법인 제주비료(주)=19일 창립 27주년을 맞는 농업회사법인 제주비료(주)(대표 이용민·사진)는 제주 토양에 특화된 작물별 전용 비료와 친환경 유기질비료 공급을 확대해 제주농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 농업분야 전문회사로서 정체성을 확립하고 농업인의 실익 증진을 위해 올해 초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해 새로운 각오를 다지고 있다.

이용민 대표는 "감귤 전용 배합 비료의 시초라는 자부심을 바탕으로 고객 만족과 환경을 존중하는 기업으로 정착해 나가겠다"며 "신뢰할 수 있는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준수할 수 있도록 나눔 문화 확산에도 지속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 782-4985.

"차별화된 디자인으로 고객 만족"

▶제주사람들=20일 창립 21주년을 맞는 제주사람들(대표 김성환·사진)은 정부 공인 디자인 회사로 그동안 캐릭터 디자인과 문화 축제 종합 홍보물, 전시·공연 팸플릿을 제작해 실력을 인정받았다. 특히 제주도립미술관 기획전 도록과 도내 초·중·고등학교 교지 등을 고품격 디자인으로 선보이면서 신뢰를 쌓고 있다.

김성환 대표는 "양보다 질이 앞서는 차별화된 디자인으로 고객 만족도를 더욱 높여 나가겠다"며 "제주사람들의 성장과 발전에 성원과 격려를 해 준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 702-4747.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